

파나소닉코리아, 노운하 대표이사 취임



파나소닉코리아(panasonic.kr)의 제3대 대표이사에 노운하(盧運夏, 51세) 파나소닉코리아 영업마케팅부문장(총괄이사)이 선임됐다. 2000년 11월 설립된 파나소닉코리아의 대표이사에 한국인이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는 파나소닉코리아의 창립멤버이며, 지난 10년간 영업마케팅 분야를 총괄해왔다. 노 대표이사는 2000년 11월 파나소닉코리아의 창립 당시 영업마케팅총괄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, 2004년 이사로 승진하고登記임원이 된 후, 2006년부터 영업마케팅부문장을 역임했다.

파나소닉코리아(주)는 세계적인 가전업체인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2000년 11월 설립되었다. 파나소닉코리아(주)는 디지털카메라, 디지털캠코더 등 영상제품을 비롯해 방송장비, 생활가전,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.

Panasonic
ideas for life

첫 한국인 대표이사 취임

노운하 신임 대표이사 프로필

- 성명: 노운하(盧運夏)
- 출생: 1960년 3월, 경북 상주 출생
- 학력: 1987.0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
- 경력:
 - ~ 2000.02 : 아남전자(주) 외자구매팀장, 수입상품팀장
 - ~ 2000.12 : 미래통신(주) 관리부문장
 - 2000.12 : 파나소닉코리아 설립과 동시에
영업마케팅 총괄부장으로 입사
 - 2010.03 ~ 현재 : 파나소닉코리아(주) 영업마케팅부문장 역임 중
 - 2010.04.01 : 사장 승진과 함께 대표이사 취임

파나소닉코리아 역대 대표이사 명단

- 1대: 야마시타 마사카즈(山下正和)
- 2대: 가토 후미오(加藤富三夫)
- 3대: 노운하(盧運夏)